사감증심 새로운 창원

창원시 태풍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

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

창원시장 허성무



─ 창원시 태풍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

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

- 창원시 소개
- ₩ 자연재해 변화와 특성
- Ⅲ 대한민국 대표재난과 창원시 태풍피해
- ₩ 창원시 태풍 방재 노력

창원시 태풍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

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





- 창원의 역사
- 지리적 위치
- •도시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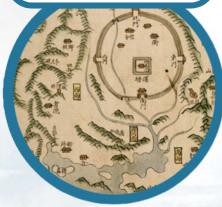
01 창원의 역사

대한민국 근·현대사 변화의 중심 역할 수행





조선시대 (1,400년)



철기문화 중심지



근·현대



산업화

마산항 개항 (1899年) (1970年)

마산수출자유지역

창원국가산업단지 (1974年)

통합창원시 출범 (2010년~)



민주항쟁

4·3 독립만세운동 (1919年)

3·15 의거 (1960年)

10 · 18 민주항쟁 (1979年)

마산 + 창원 + 진해 통합

동남권과 제주도의 중심부에 위치 "다양한 교통편, 편리한 접근성"

▶ **공** 항: 김해국제공항 → 50분 거리 ▶ 고속도로 : 남해고속도로, 중부내륙고속도로 → 편리한 교통인프라

▶ KTX역: 마산역, 창원역, 창원중앙역 → 3개역 ▶ 항 만: 가포신항, 부산항 신항 → 세계시장의 수출 전진기지





서울:1시간/도쿄:2시간



서울: 2.5 시간



서울: 4시간

03 도시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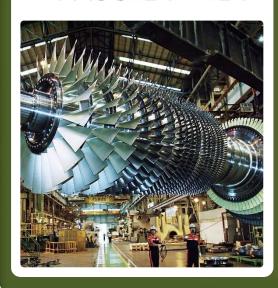
기계 산업의 요람 & 대한민국 방위산업 메카

▶공작기계 업종 : 한국의 80%

▶기계산업 생산액: 한국의 2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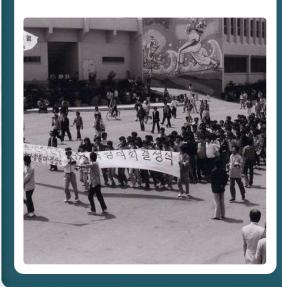
▶방산매출 : 한국의 27.2%

▶국가지정 방산업체: 21%입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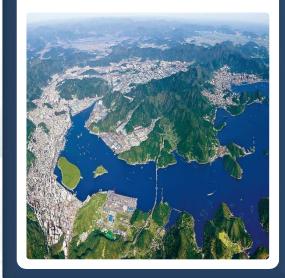
민주화 성지 도시 (한국의 민주화 시발점)

- ▶1960년 3.15 의거
- ▶1960년 4.19 혁명
- ▶1979년 부마민주항쟁
- ▶1987년 6월 항쟁



수도 SEOUL 보다 넓은 도시

- ▶도시면적 747.8km²
- ▶해안선 324.23km



*창원국가산업단지 + 진해경제자유구역 +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지

도시 전분야 안전도시로!

창원시 태풍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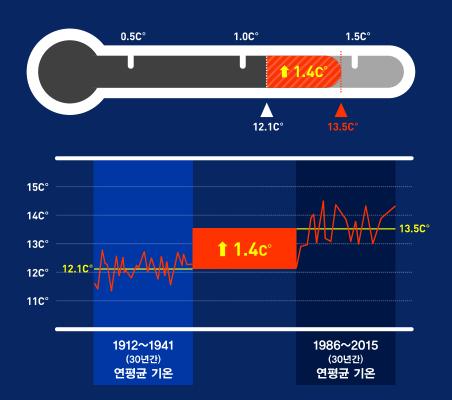
₩ 자연재해 변화와 특성

- 104년간 기후변화 추이
- 21세기 자연재난 특징
-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촌 태풍 발생

104년간 기후변화 추이



한반도 기온



세계기온보다 한반도 평균기온 상승폭 1.5배↑ → 이상기상현상 발생가능성 증가

02 21세기 자연재난 특징

✓ 예측불가, 비통제, 비규칙 재난의 일상화 ✓ 재난의 "집중화" ✓ 피해의 "대형화"

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집중화

- 기상이변 속출. 호우강도 증가
-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가중

재해발생가능성 지속적 증가

- 지구온난화에 의한 대기 불안정 심화
- 매년 시우량 경신 및 연강우량 증가

피해 규모 (지구촌) 50 년간 (1950 ~ 1999) 6천억 달러



10 년간 (2000 ~ 2010) 6천억 달러

과거 10년(1990~1999) 보다 최근 10년(2000~2010) 간

경상남도(창원) 자연재난 피해액 7배 증가

03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촌 태풍 발생

총 태풍 발생빈도 2% ♣, 슈퍼 태풍 級 강한태풍 52% 會

※ 슈퍼태풍: 1분 평균 최대 풍속이 67m/s 이상인 태풍



한반도 주변 태풍 길목의 수온 상승으로 슈퍼태풍이 강도를 유지하고 북상 전망

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**경상남도(창원)**, **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 증가**

창원시태풍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



Ⅲ 대한민국 대표 재난과 창원시 태풍피해

- 대한민국 자연재해
- 창원시 태풍발생 BIG 3

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(2008~2017)

















① 태풍 매미 (2003. 9.)

• 인명피해: 82명(사망 24명)

•이 재 민: 1,876세대 6,429명

• 건물피해 : 10,832동

• 재산피해 : 약 3,200억원

태풍 상륙시간과 만조시간이 겹치면서 폭풍해일 발생

- 실측조위 419cm
- 예측조위 204cm → 시가지 4.02km² 침수



02 창원시 태풍발생 BIG 3

② 태풍 산바 (2012. 9.)

•이 재 민: 20세대 / 30명

• 건물피해 : 168동

• 재산피해 : 약 39억원

66 태풍 내습시 조위상승에 의한 해수 범람

"

• 1시간 최대 강우 54.5mm • 하루 최대강우 232.5mm → 제방붕괴



14

③ 태풍 차바 (2016. 10.)

•이 재 민:4세대/5명

• 건물피해 : 291동

• 재산피해 : 약 104억원

집중호우로 하천 및 하수 통수단면 부족

"

- 1시간 최대 강우 101mm
- 시 전역의 저지대 침수



창원시 태풍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





₩ 창원시 태풍 방재 노력

- 재난방재 전략과 목표
-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
- 생활 속 선진 안전문화 정착
-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조성



66 항구적 도시안전 시스템 구축 99

| 하드웨어 |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

- ▶재해위험지구 정비(3개소)
- ▶방재언덕 조성
- ▶우수저류시설 설치(3개소)

| 소프트 웨어 |

생활 속 선진 안전문화 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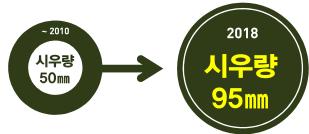
- ▶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
- ▶지역사회 안전문화 리더양성
- ▶ 全시민 안전보험

| 근본적 대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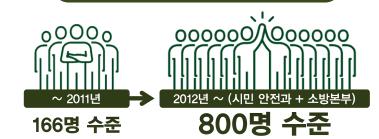
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조성

- ▶1년 백만그루 나무 심기
- ▶녹색교통수단 확대
- ▶치수기능 생태하천 조성

방재성능 목표치 강화



재난전담부서 기능 강화



도시전분야 안전도시로! 17

사람중심 새로운 창원

하드웨어

재해발생 우려지역(상습침수지역, 산사태 위험지역 등) 집중 관리

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

해수위 만조 시 역류발생 (태풍 매미, 산바)주택침수 8,687동 저지대 침수 해결

배수펌프시설 설치: 456억

1분당 최대배수량 2,518m3

신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

2차례 산사태 발생

붕괴위험 지역 가옥이주

가옥이주 및 철거 133동

310억

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

하천단면부족으로 호우시 하천범람

하천단면 확장

하천개수 700m 우회관로 900m

188억

항구복구 시스템 도입

원상복구 → 항구복구 (근원적 피해원인 해소)

도시 전 분야 안전도시로!

02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② 해안저지대 방재언덕 조성

하드웨어

사업비

541억원

사업규모

1.25km, 폭 30~70m

사업내용

- ① 해일 피해 방지시설 (투명 강화벽, 방조벽 등)
- ② 친수공간 등





도시 전 분야 안전도시로!

02 맞춤형 수방사업 추진 ③ 우수저류시설 설치

하드웨어

▶도심 저지대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시가지 침수방지

▶사업량: 74,100 ton

▶사업비: 490억





제방 위주의 선(線)적인 치수대책 → 홍수량을 분담하는 면(面)적인 방어개념으로 확대

도시 전 분야 안전도시로!





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

노인 (4개 프로그램)

12,830명

(10개 프로그램)

성인

75,811명

청소년 (4개 프로그램)

41,704명

아동 (9개 프로그램)

37,809명

168,154 명

지역사회 안전문화 리더 양성

안전문화 리더

450명

+

창원 안전人 구성

455명

_ 민·관 - 합동 방재

시민안전 보험

"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적응"

창원시민 누구나(외국인 포함)

재난사고의 지방정부 책임 강화

①4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조성

근본적 대책



백만그루 나무 심기

누적 637만 그루

만본

118 만본

138

만본



친환경 자동차 도입

- ▶ 수소버스 50대
- ▶ 전기버스 259대
- ▶ 승용차 1만대 보급 *2022년까지 단계별 보급

녹색교통수단



생태하천 조성

치수 기능



水 생태계 회복

- ▶ 7개 소하천 25.42km 완료
- ▶ 3개 소하천 4.3km 조성 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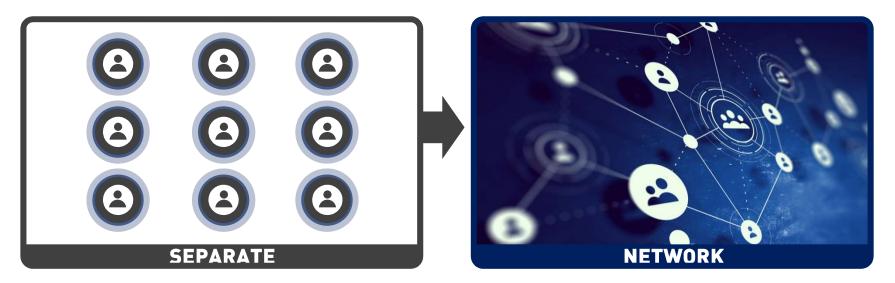
앞으로 과제

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시대 도래

재난대응 광역 네트워크망 구성

현재 지자체 별 국지적ㆍ독립적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장비ㆍ인력 측면 한계

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예보 시스템 도입 및 그물망 지원 시스템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 마련



국·내외 지방정부 간 <u>광역지원시스템 구축</u>으로 <u>미래재난 대응 필요</u>

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

